

기독인 여성들의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Healing Dialogue with Christian Women

조지혜 (Ji-Hye Jo)*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qualitatively understand the lived-experiences in dialogues with three married women in the fellowship of christian faith from 2013 to 2018. The study considers the phenomenological meanings of 'dialogue', and analyzes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it. In the process of reflecting and restoring the encounter with three women in my personal life, I have understood the uniqu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the dialogues toward inner healing. By restoring the dialogues in the past through the researcher's retrospective diary record and individual interviews with each participant, I could find the position and meaning of the dialogues in the context of their life stories. Then, I have studied the meaning of 'dialogue' which finds an origin of deep wounds, by applying the concepts of phenomenology. Through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I provisionally conceptualized a series of dialogues as 'healing dialogue'.

Healing dialogue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was realized in the depth of 'personal relationality'. The process of 'healing dialogue' was built upon the interest toward the face of the other in pain. Interest to the other led to attention and awareness of the inner pain shaping the emotions and atmosphere of her. Respecting the 'temporality' of waiting and hesitation, and through deep dialogues, the other could open her wounded existence. The listener tri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other by responding to her who confessed the wounds. Through such a dialogue of confession and response, the other could acquire the 'hermeneutic abilit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her life totally. In essence, based on the personal relationality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ther, 'healing dialogue' was realized by the interrelated characteristics—interiority, deepness, narrativity, sympathy, and ethicality.

Key Words : healing dialogue, lived-experience, face of the other, origin of wounds, inner healing, personal relationality

*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육학과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wisdomj2@snu.ac.kr
2019년 07월 31일 접수, 10월 09일 최종수정, 11월 02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2019. 05. 11)에서 ‘새로남 청년학술논문상’을 수상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학위논문: 조지혜 (2019).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 서론

인격적 관계성이 결여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은 지난 7년간 신앙과 우정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세 기혼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다.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 살아가던 세 여성들과 나는¹⁾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아픔을 지닌 자녀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깨어진 가족 관계의 상처를 가진 이들, 부모의 폭력 속에 노출된 이들, 친구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외로움 속에 있는, 서로 다른 현실 속에 처해있는 다음 세대들을 마주하면서, 30~40대 중간 세대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희망과 미래를 제시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한 배에 타고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한 시대적 요청과 책임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참여자들과 나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자 부모 세대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지역 교회에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던 세 기혼여성들과 나의 대화는 교회나 가정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책임 있는 응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어지면서 점차 성숙한 대화로 발전해갔다. 그리고 우리들은 타인을 향해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중요한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는 타인에게로 향하는 책임 있는 응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 세 여성들과 나는 부모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온 생애사 속에서 지금의 존재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 여성들과 깊은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는 타인의 아픔

1) 본 논문에서는 필자나 연구자라는 표현 대신 연구를 수행하게 된 체험적 맥락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체험적 주관론 가진 존재자로서 연구자의 실존적 위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과 그들의 고유한 인격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 체험임을 깨달았다.

연구의 참여자가 된 세 여성들과 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신앙과 삶에 대한 내밀한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의 존재에 깊이 참여하는 대화를 체험하였다. 세 여성들과 나의 개인적인 만남은 상처로 깨어진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대화의 과정으로 나아갔다. 자신이 체험한 부모-자녀 관계를 생애사 속에서 성찰하는 대화를 통해, 유년시절부터 성인기까지 한 사람의 존재와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발생적 근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최초의 타자’라고 볼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세 여성들과 나의 대화는 이러한 ‘존재의 발생적 근원’을 찾아가는 탐구의 여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자기 발견과 이해는 부모 세대와 우리 자신, 그리고 자녀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본 연구는 유년시절부터 체험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성찰로 나아갔던 세 여성들과의 대화가 갖는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다 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 여성들과 함께 나눈 대화 체험의 과정과 성격에 담긴 현상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형성하였다. 첫째,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는 어떠한 과정과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 둘째, 참여자별 대화가 갖는 독특성과 공통점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대화 체험의 성격과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존재의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 깊이 있게 전개된 대화는 내면의 치유와 어떠한 상호 관련을 맺는가? 나는 대화 체험의 맥락을 살린 질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러한 대화를 어떠한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을지 탐구하였다. 개인적 체험으로 존재하는 만남과 대화를 연구자적 관심으로 탐구함으로써 대화의 본질적 의미를 고찰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내면의 치유’ 사이에 있는 내적 관련성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깨어진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과 대화의 관련성에 대한 탐구는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내면의 치유와 대화에 관한 논의는 정신분석학과 상담학뿐만 아니라, 신학, 철학, 간호학, 문학, 미학, 교육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각 학문 분야에서는 대화를 심리치료를 위한 방법적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며, 대화 그 자체의 본질을 구현함으로써 치유의 결과를 얻기도 한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내면의 치유와 대화의 관련성이 어떻게 탐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학문적 위치를 찾고자 한다.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의 과정은 한편으로는 ‘상담’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의 맥락과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생활세계 속의 만남과 대화였음을 염두하며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1. 정신분석학과 상담학에서 본 치유적 대화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적인 내면세계의 갈등이 개인의 성격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병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내면세계를 치료해 왔다. 대화를 통해 의사는 환자의 정신적 상태를 진단하며, 환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대화를 전개한다. 개인의 성격구조를 형성하게 된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함으로써, 건강한 자아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것이 정신분석학에서 이뤄지는 치유적 대화의 목적이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심층적인 의식을 ‘무의식’으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병리적인 증상을 넘어 인간 일반의 무의식과 비합리성의 바탕을 이해하려는 시도들로 확장되었다. 정신분석학자 융(Jung, 1920)은 인간 존재가 갖고 있는 모순적이고 비합리적 측면이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성의 영역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체험의 심리적 연관 관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때 무의식이란, 의식적으로 자각되지 않은 “의식의 역치 아래에 있는 모든 심리적 사건들의 총체”(Jung, 1920, 김성환 역, 2016: 225-226)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내면세계의 심층에 자리한 무의식을 어떻게 의식화할 수 있을까? 정신분석학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대한 주의 깊은 경청

과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무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Jung, 1920).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 개인의 생애와 특정 사건에 대한 자기 성찰과 분석이 이뤄지며, 의사는 환자 스스로 의식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무의식에 잠재해 있는 생의 에너지를 환자 자신이 주체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돕는 것이 정신분석학에서 이뤄지는 치유적 대화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학은 대화와 내면의 치유의 관련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일상적 고민이나 내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두루 다루게 된다.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내담자의 내적, 심리적 문제를 찾아가고자 한다. 상담자는 주로 내담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내담자를 심리적으로 조력한다. 기본적으로 상담 관계는 내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전문적 지식, 심리적 조력을 통해 형성된다. 이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와 진실성, 전문성은 상담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치료 기법에 중점을 둔 심리상담도 있지만, 상담은 본질적으로 상담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라포(rapport)’ 형성을 토대로, 내담자가 자기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담자 중심의 대화 관계가 중요시 된다.

상담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상담 원리와 방법들은 신학, 철학, 간호학, 미학, 교육학 등 다른 학문 영역과의 접목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로 인간의 영적인 측면에 주목해왔던 신학에서도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목회상담이나 상담신학 영역이 구축되고 있다. 한 예로, 노승수(2018)의 연구는 핵심 감정들이 몸과 영혼을 추동하는 무의식적 동기로 내담자의 내면에 인격화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그는 부담감, 그리움, 경쟁심, 억울함, 불안, 두려움, 열등감, 슬픔, 무기력, 허무, 소외, 분노와 같은 핵심 감정들이 내면의 인격을 형성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본다. 노승수(2018)는 핵심 감정의 ‘찾기(naming)’→‘보기(mapping)’→‘지우기(erasing)’→‘인격주체 세우기(rebuilding)’의 과정을 통해 핵심 감정을 치료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그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무의식의 영역과 핵심 감정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내면의 치유는 바로 이러한 핵심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핵심 감정은 주로 상처의 근원이 위치한 무의식의 영역으로부터 생성되며, 핵심 감정에 직면하는 과정은 의식화되지 않은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연관된다.

한편, 치료를 위한 수단이 아닌 대화 자체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면서 대화를 통해 내면의 치유를 이루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다. 최근 개척되고 있는 철학상담 분야는 철학을 심리치료나 상담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 대화를 실천하는 활동으로서 강조한다. 철학자와 내담자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함께 내담자의 문제 상황을 철학적으로 숙고한다. 삶에 대한 ‘철학하기’를 수행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삶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을 구현하는 대화로 나아가게 된다(김선희, 2015).

한 예로, 김선희(2015)의 연구는 자기이해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세우는 철학상담의 방법을 제시한다. 철학자는 내담자의 문제 상황에 대한 경청과 이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형성하면서, 고착된 삶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얻는다. 박병준(2017)은 철학상담의 한 방법으로 철학교육과 철학상담을 결합한 ‘현상학적 철학상담’의 방법론을 제안한다. 현상학적 철학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이 겪은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철학적으로 숙고하도록 돕는다.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과거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을 시도하고,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체험을 구성하고 있는 의식 세계를 밝혀가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철학적 대화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내담자는 자신의 체험을 주제적으로 반성함으로써 과거의 체험을 의미 있게 재해석하게 된다.

이처럼 철학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고민이나 문제나 체험을 대화의 중심에 두고, 철학 활동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하기’로서의 대화를 시도한다. 철학적 대화를 구현하면서 내담자는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인 해석’의 힘을 기르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내면세계와 사고를 건강하게 정립하며, 주제적으로 살아가는 ‘생각의 힘’을 기르는 것이 철학상담에서 추구하는 치유적 대화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신분석학과 상담학 및 철학상담 영역에서 추구하는 치유적 대화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포함한 내면세계에 주목하면서, 내면세계의 상처를 언어적 대화를 매개로 의식화하고 치유하고자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치유적 대화는 언어적, 이성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감성적, 관계적 측면에 대한 탐구를 모두 필요로 한다. 이성과 더불어 언어화되기 어려운 감정과 정서, 관계 등의 차원을 어떻게 대화 주체의 인격

안으로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2. 비언어적 예술 활동 및 간호학에서 본 치유적 대화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심리치료와 상담은 감정과 정서의 영역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술’이라는 표현 활동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한다. 예술 활동에서는 신체와 감성의 영역으로 확장된 비언어적 대화를 심리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표현 활동들은 내면세계를 보다 질적으로 표현하고 성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술 활동을 매개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인 상처를 표현하고 이해하며 타인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억압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과 병행되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은 다양한 표현 양식을 통해 내담자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치유적 대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는 심리치료의 한 기법이 아닌 예술 활동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되는 치유적 가능성과 의미를 탐구하는 흐름들이 있다. 현대미술의 흐름에서 등장한 ‘고백미술(confessional art)’은 주로 자전적인 요소를 담은 미술 작업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상처에 직면하는 창작 활동을 보여준다. 고백미술적인 성향을 지닌 예술가들은 과거의 상처와 직면하고 이를 작품으로 승화하는 작업 과정을 거치면서, 종종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체험을 한다. 한 예로, 김수연(2013)의 연구는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가족 관계의 억압된 상처를 표현하고, 이를 관객들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예술가의 내밀한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백미술은 표현 활동을 매개로 예술가의 상처 입은 내면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삶에 대한 자전적 서사를 시각화하는 일종의 ‘시각적 내러티브’의 성격을 갖는다.

상처 입은 내면을 자각하고 표출하며 성찰하도록 돕는 다양한 표현 활동은 비단 언어라는 형식에 제한되지 않는다. 예술이라는 표현 활동 속에서 우리는 대화가 가진 비언어적, 감성적 측면을 발견한다. 실제로 대화의 형태는 발화된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감정이나 정서 등의 비언어적 표현 양식을 매개로 형성된다. 이러한 대화의 비언어적 측면들은 대화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에서 발화된 언어만큼이나 비중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다. 예술기반 연구들은 비언어적 표현 활동과 내면의 치유와의 관련 속에서 감정과 정서의 영역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간호학에서는 환자와 맺는 인격적, 정서적, 관계적 차원에 주목하여 돌봄의 철학적 의미를 탐구한다(Edwards, 2001; 공병혜, 2017). 돌봄과 치유의 의미를 존재론적으로 연관시키는 간호철학의 흐름들은 간호사와 환자의 관계를 두 인격 간의 만남이라는 관계의 본질적 의미 속에서 고찰한다. 대화와 돌봄, 치유에 대한 사유 또한 ‘대화 주체들 간의 만남’이라는 본질적 관계 맺음 속에서 성찰하고자 한다. 공병혜(2017: 89)는 돌봄과 대화의 의미 연관을 탐구하면서, “근원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상호 돌봄의 과정”으로서 대화를 정의한다. 상호 돌봄의 과정인 대화를 통해 오고가는 정서적 교류와 타인에 대한 공감과 수용은 비판적인 대화와는 차이를 갖는다. 상호 돌봄의 대화는 언어로 발화된 측면보다 대화가 구현되는 ‘관계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에 중심을 두고 있다. 공병혜(2017)에 따르면, 나와 너라는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우정 관계 속에서 정서적 참여를 통한 돌봄의 대화가 이뤄질 때 진정한 돌봄의 가치가 구현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간호사와 환자는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돌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간호사는 환자의 신체로 표현되는 고통과 곁핍에 응답함으로써 그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는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응답을 ‘상호적인’ 돌봄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대화 관계가 가질 수 있는 인격적, 윤리적, 정서적 차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예술 활동 및 간호철학에서 보는 치유적 대화는 대화가 갖는 비언어적, 정서적, 관계적 차원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대화가 서사 구조를 갖는 내러티브의 형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 활동은 내러티브가 가진 비언어적 차원과 그것이 시각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또한 간호학에서 강조하는 치유적 대화는 환자와 간호사라는 두 인격 사이의 돌봄의 관계성 속에서 실현된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나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라 할지라도, 간호사는 환자를 “삶의 이야기를 지닌 고유한 인격체로”(공병혜, 2017: 114) 존중함으로써, 돌봄을 바탕으로 한 대화 관계를 실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중심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치유적 대화’는 심리치료를 위한 수단이 아닌, 두 인격 간의 만남이라는 대화 관계의 본질적 의미와 존재론적 관련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화 체험의 언어적 차원과 함께 비언어적 차원 또한 비중있게 다루고자 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과 절차를 수행하면서, 주체-타자의 인격적 관계 맺음을 통해 실현되는 치유적 대화 체험의 현상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였다.

III. 연구 방법과 절차

1. 연구 방법: 현상학적 체험연구

본 연구는 현상학의 문제의식을 철학적 토대로 하여 두 인격 사이에서 이뤄지는 치유적 대화 체험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연구를 통해 수행한 현상학적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기에 앞서, 현상학의 철학적 문제의식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후설(Husserl)을 시작으로 전개된 현상학의 흐름은 현대 사회의 병폐가 근본적으로는 철학의 위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성찰한다. 이는 실천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후설은 사태의 본질구조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기반으로, 개인과 사회, 문화적 측면의 인간 개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이남인, 2004: 29-30). 그는 실증주의에 기초한 철학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철학의 위기에서 현대 과학 일반의 위기, 더 나아가 현대인이 처한 실존적 위기가 유래하게 되었다”고 진단한다(이남인, 2004: 26). “특정한 사태 영역에만 타당한 존재 및 인식원리를 일반화시켜 모든 사태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태 자체를 총체적이며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이남인, 2004: 25).

한편, 레비나스(Levinas)는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을 전개하면서 고통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통해 주체는 자신의 내면성을 초월하여 타자에게로 이행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의 타자 철학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과 윤리적 관계 맺음을 통해, 주체의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강영안, 2005: 176-184). 이처럼 현상학자들은 철학적 성찰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삶의 영역을 숙고할 수 있도록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의 기반을 놓고자 한다.

현상학의 관점에서 볼 때, 생활세계 속의 체험들은 다양한 의미와 본질이 현출하는 장(場, *champ*)이다. 현상이나 체험 자체는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텍스트로서 다양한 의미들이 생성되는 해석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관심으로 현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학문적 의미는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앙과 삶의 맥락에서 이뤄진 생활세계의 체험으로부터 대화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한다면 어떠한 의미가 발견될 것인가?

본 연구에서 활용한 현상학적 분석은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현상학의 방법적인 원리를 토대로 체험의 본질을 해명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맥락에 위치해 있다(이남인, 2014). 한 예로, 밴 매넨(van Manen, 1990)은 현상학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체험 자체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탐구하는 ‘체험연구’의 방법을 제안한다. 체험연구는 우리가 반성을 거쳐 개념화하고 범주화한 세계가 아닌, 생활세계의 체험에 주목함으로써 현상의 본질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험을 먼저 개념화하기보다는 되도록 생활세계의 맥락을 살려 체험을 질적으로 기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특징짓는 중심 주제들을 반성함으로써 체험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는 세 여성들과의 대화는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뤄진 생활세계 속 체험이었으며, 이는 특정한 개념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참여자들과 나 사이에 체험적이고 질적으로 존재하는 대화였다. 나는 세 여성들과 나누었던 대화 체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해, 생활세계의 맥락에서 나누었던 개인적인 대화 체험을 연구자적 관심으로 재조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참여자가 되어준 세 여성들과 함께 과거의 대화 체험을 복원하고 체험의 의미를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나는 체험연구의 맥락에서 대화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참여자들의 고유한 생애 안에서 대화 체험을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각 참여자들의 대화 체험을 내부적으로 비교하고, 현상학자들의 개념을 통해 체험의 의미를 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화 체험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하였다.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대화가 전개된 과정과 양상 및 성격을 중심으로 주제적인 분석을 시도하면서,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하는 인격적인 대화의 형식을 ‘치유적 대화’로서 잠정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실현되는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인 만남이 어떻게 내면의 질적인 변화나 치유와 관련을 맺는지를 탐구하였다. 현상학적 체험연구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연구 수행 및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연구 절차: 연구 수행 및 분석 과정

연구의 참여자로 함께 한 세 여성들과의 만남은 2013년 무렵 한 지역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신앙생활을 위해 20~40대 기혼여성들이 모인 교회의 소그룹과 전도회에 참여하면서, 몇 명의 기혼여성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게 되었다.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과 나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내밀한 마음의 상처를 나누는 깊은 관계를 맺었다. 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유년시절부터 타인,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근원적인 상처를 발견하고 마주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 여성들과 나의 만남은 연구의 맥락이 아닌, 일상적인 삶과 신앙의 맥락에서 형성되었다. 연구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현장을 탐구하는 기존의 연구 방향과는 달리, 삶 속에서의 질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연구자적 관심과 물음이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차이를 갖는다. 상담의 경우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대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일상적 삶의 맥락에서 비의도적으로 일어난 이러한 대화 체험을 어떻게 의미화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세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먼저 참여자들과 나는 생활세계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회상과 구술의 방법을 통해 ‘복원’하며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어갔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복원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역사학자들의 작업과도 유사한 생애사적 탐구의 과정이었다.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회상과 구술을 통해 과거의 대화 체험을 복원하는 작업과 참여자들의 생애에 대한 내러티브 중심의 면담을 수행하면서 연구의 중심 자료를 만들어갔다.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연구화 단계에서 먼저 참여자들의 1차 동의를 받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연구자의 회상일지’라는 형식을 통해 2013년 봄부터 2015년 봄까지 지난 2년간 세 여성들과 나누었던 대화 체험을 일차적으로 복원하였다. 참여자들과 나는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수첩에 남아있는 메모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화들을 날짜와 시간, 장소, 분위기, 느낌,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하여 회상일지로 작성하였다. 연구자의 회상일지를 각 참여자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담은 인물별 회상일지로 재구성한 후,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검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세 여성들의 삶의 내러티브를 살린 일대일 면담을 수행하였다. 참여자들과의 개별 면담을 수행하기 전, 연구에 대한 참여자들의 2차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개인의 생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연구인만큼, 참여자들이 계속하여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선

택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은 연구자의 회상일지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과거의 대화 체험과 그들의 생애 전체에 대한 구술을 해 주었다. 연구자의 회상일지와 참여자 면담은 연구자의 체험과 참여자의 체험이 교차하는 지점을 잘 보여주는 중심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무엇보다 참여자 중심의 ‘비구조화된 면담(unstructured interview)’을 수행하면서 참여자들의 관점과 목소리를 되도록 생생하게 담고자 했다. 참여자들은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구술하는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과거의 대화 체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애 전체를 의미 있게 조망할 수 있었다. 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은 분절되어 있던 다양한 체험들을 의미 있는 삶의 스토리로 재구성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면담이 단순히 연구 자료의 수집을 위한 방법적 도구를 넘어, 삶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구성과 해석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면담은 우리가 과거에 나누었던 대화 체험과 분절된 연구 방법이 아닌, 대화적 관계의 연장선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참여자들과 함께 과거의 대화 체험을 복원하고, 그들의 생애에 대한 구술 속에서 대화 체험의 위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공동 연구’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나는 이러한 공동 작업을 통해 체험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공감적 교류를 담아내며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대화 체험을 자료화하는 과정을 기반으로, 이후의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자의 회상일지와 참여자별 면담 자료를 토대로,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 체험을 그들의 고유한 생애의 맥락 안에서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생애사 속에서 대화 체험의 맥락을 살려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작업은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월코트(Wolcott, 1994)는 기술, 분석, 해석을 개념상으로 구분하면서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삶의 실존 맥락에서는 내가 본 것 그대로를 독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현상학적 기술을 통해 체험의 본질을 독자와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상학적 기술이 이뤄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는 기억 뒤편으로 계속적으로 밀려나는 과거의 체험을 현재의 의식 안에 포착하는 의식적인 기억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일차적으로 몸에 새겨진 체험을

기술하고, 체험의 본질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일차적으로 기술한 체험을 재구성하는 글 쓰기 작업이 병행된다.

나는 참여자들의 생애에 대한 구술 속에서 과거의 대화 체험을 재구성한 후, 밴 매넨(van Manen, 1990)이 제안하는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실존 범주들을 분석틀로 하여 대화 체험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체험적 공간(공간성), 체험적 신체(신체성), 체험적 시간(시간성), 체험적 인간 관계(관계성 혹은 공동체성)”라는 실존 범주를 통해(van Manen, 1990, 신경림·안규남 역, 1994: 139), 참여자들의 체험을 구성하는 네 차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각 실존 범주가 참여자들의 상처의 근원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 공통적인 주제를 찾아 분석하였다. 특히 주체와 타자의 ‘관계성’의 차원에 주목함으로써, 치유적 대화가 인격적 관계성을 회복하는 과정과 어떠한 내적 관련이 있는지를 실존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고찰하였다. 세 참여자들의 체험이 어떠한 맥락에서 차이를 갖는지, 그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의 체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상처의 근원이 어떻게 관계성의 차원을 형성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참여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가족관계’와 ‘내면의 상처’를 주제로 한 대화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대화가 상처의 근원에 직면하는 과정으로 전개된 공통적인 맥락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는 현상학의 개념을 활용하여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대화가 갖는 과정과 양상을 고찰하고, 내면의 치유로 연결되는 대화의 속성과 성격이 무엇인지를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비나스(Levinas)의 “타인의 얼굴”을 중심 개념으로 활용하면서, 후설(Husserl), 하이데거(Heidegger), 셸러(Scheler), 부버(Buber)의 현상학 개념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의식의 심층과 존재, 주체와 타자의 관계, 주체의 정립 등에 관한 현상학의 개념들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체험과 현상학적 이론이 어떠한 지점에서 만나는지 적용해보고, 실제적인 대화 체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도해 보았다.

IV.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

1.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참여자들과 나는 구체적인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기술은 100페이지 정도의 심층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참여자들과 나는 대화 중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하거나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원자료(raw data)’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40대 초·중반의 여성들로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이다. 세 여성들과 나의 관계에서 일대일로 이뤄진 만남과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교사인 참여자 ‘다니엘’(가명, 40대 초반 기혼여성)은 2013년 당시 디스크로 휴직 중이었다. 직장과 육아, 교회 사역을 병행하며 바쁜 시간을 지났던 다니엘이 잠시 쉬어가던 시기에, 나는 다니엘과 교회의 전도회에서 만날 수 있었다. 성경 지식에 대한 지적인 갈망이 컸던 다니엘과 함께 우연한 계기로 교제를 나누며, 다니엘과 나는 정기적인 기도와 교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그녀가 갖고 있던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휴직 중에도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여러 교회 사역들을 맡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이 강박적으로 일을 되풀이하는 자신을 보며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다. 나는 그녀의 마음 상태가 유년시절의 상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의 유년시절부터 가족관계에서 겪은 아픔과 상처가 신앙 안에서 다뤄지고 치유된 여정을 나누게 되었다. 이 대화를 계기로 다니엘은 유년시절 겪은 아버지의 부재와 그로 인해 찾아온 가난의 문제가 그녀의 마음에 강박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섯 살 어린 나이에 사우디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폐암으로 여의고 홀로 남겨진 “외로운 소녀”와 같은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다니엘은 학창 시절에도 자주 아버지에게 대한 꿈을 꾸었다. 너무나 좋았던 아버지가 꿈에서 깨어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순간, 그녀는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정서는 그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녀는 대화를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강박적인 모습이 아버지의 부재라는 근원적인 상처와 연결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하나님의 존재도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강박적인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던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붙잡고자 하는 그녀의 강박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의 존재에 형성된 외로움과 두려움의 정서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던 상처의 근원을 이해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새롭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인 ‘마리아’(가명, 40대 중반 기혼여성)는 우리가 만난 지역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착하고 있었으며, 재혼과 동시에 시부모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청소년 시절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2013년 당시 마리아는 시부모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건강의 악화, 과중한 교회 사역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소진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는 고난 중에 있는 마리아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돌보는 과정에서, 감출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과거에 대한 고백을 듣게 되었다. 술과 도박과 마약에 빠져있던 전남편에게서 도망치면서 아들을 두고 올 수 밖에 없었던 마리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갔다. 이후에도 암에 걸린 아들을 면발치에서 지켜보며, 그녀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마음 속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사람들의 편견어린 시선을 견뎌내고자, 성도들 사이에서 더욱 인정받기 위해 교회 사역에 힘쓰고 있었다.

‘사회적 가면’을 쓰며 자신의 존재를 감춰야 했던 마리아의 내면에는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양가적인 감정들이 오랜 시간 공존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친구에 대한 우정과 질투의 마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은 기대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교회의 권위자에 대한 순종과 원망의 마음,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마음과 속박된 마음 등 마리아의 내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감정들이 그녀의 존재와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유년시절부터 사업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그녀를 방치하고 때로는 학대했던 어머니에 대해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 돌봄을 받지 못한 마리아의 청소년기는 일탈로 이어졌고, 이는 원치 않는 임신과 결혼이라는 굴레로 그녀를 빠져들게 했다. 가난이라는 물적 조건과 부모로부터 방치된 상처, 그리고 타인의 편견어린 시선 속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마리아의 내면에는 단단한 옹어리가 형성되었다. 마리아와 나는 서로를 향한 돌봄의 관계를 맺으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마음의 벽을 차차 허물 수 있었다. 안전한 관계 속에

서 그녀는 자신의 얼룩진 삶을 열어 보이며, 과거의 삶에 대한 고백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삶이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공감되는 것을 체험하였다. 고백과 수용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면서, 마리아는 반복되는 고통과 상처의 굴레에서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마지막 참여자인 ‘안나’(가명, 40대 중반 기혼여성)는 매일 같이 고된 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시에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맡고 있었다.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물질적인 부담감과 비가 새는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이전 교회의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복합되어 안나는 신앙의 깊은 침체를 겪고 있었다. 2013년 교회의 소그룹에서 안나를 만났을 당시 그녀의 얼굴에는 늘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안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말 못할 고난과 상처의 무게들을 홀로 감당하고 있었다. 유년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은 뻣속 깊은 고통이 그녀의 창백하고 그늘진 얼굴로 표현되고 있었다.

깊은 고통 속에 있던 안나가 상처의 근원을 마주하고 자신의 아픔을 나누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의 만남과 기다림 속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너의 아픔이 무엇이나”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안나는 기도를 통해 고통스러운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의 머뭇거림 끝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뼈아픈 고통의 근원을 타인에게 열어 보일 수 있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공장에서, 그리고 미용실 보조로 일하며 고된 노동을 했던 안나의 삶은 부모로부터 버려진 상처와 가난이라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나는 존재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녀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타인에게 고백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에 맺힌 한(恨)의 정서를 벗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고통을 타인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깨어진 조각과 같았던 자신의 지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의 그림으로 재해석하게 되었다.

이처럼 참여자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내면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가며,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타인에게 열어 보이는 용기 있는 소통의 과정이었다. 타인과 함께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고 그 고통을 나뉘지는 대화는 오랜 시간의 만남을 필요로 했으며, 우리의 대화는 점차 내면 깊은 곳을 향해 가면서 상처의 근원이 있는 존재의 심층에 다다랐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막연하고 익명적으로 남아있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의식으로 보다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대화로 나누었을 때, 상처 난 마음에 지배받던 존재는 막연한 고통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내면의 치유는 참여자들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 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뤄졌으며, 나는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돕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상처의 근원에 대한 이해

참여자들이 유년시절부터 겪었던 체험들은 어떠한 의미구조를 갖고 상처의 근원으로 형성되었는가? 불안이나 강박, 신체적 아픔, 관계의 갈등이나 신앙의 침체와 같이, 참여자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내면의 근원적인 상처와 겹쳐지면서 표출된 현상이기도 했다. 나는 참여자들의 존재를 형성하는 생존과 실존 차원의 문제가 어떻게 상처의 근원으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유년시절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은 실존적 상처와 가난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는 그들의 존재에 상처의 근원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체험들이었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 거주의 불안정, 노동의 애쓰음을 특징으로 하는 근원적 체험들이 실존적, 생존적 차원에서 참여자들의 존재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것이 상처의 근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양상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1)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

참여자들이 체험한 일상성의 깨어짐은 친밀했던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이라는 뜻하지 않은 고난을 통해 일어났다. 고난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타자’²⁾는, 일상을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혼란스러운 실존적 물음이 뒤얽힌 장(場)으로 그들을 밀어 넣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상실되는 체험을 통해 존재의 결핍과 불안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관계의 깨어짐과 상실이라는 타자 체험은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다뤄진 상처의 근원이기도 하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가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인간의 존재에서 ‘관계성

2) 레비나스(Levinas)에게 ‘타자’는 고통, 죽음, 미래, 또는 고아와 과부의 얼굴을 한 타인과 같이 주체가 내부에서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영역, 즉 ‘외계성’을 본질로 한다(강영안, 2005: 104-112).

(relationality)’의 차원이 얼마나 근원적으로 자리한 ‘실존 범주’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관계가 상실되는 가장 큰 체험 중 하나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경우일 것이다. 특히 의식주를 공유하며 오랜 시간 삶의 행복과 고난을 함께 겪는 ‘가족’이라는 관계는 그 친밀함이 더 깊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존재자에게 가족 구성원의 죽음이나 이별은 더 큰 고통과 상실감을 주는 존재의 상처로 각인된다. 무엇보다 가족을 통해 생존을 함께 유지하기 때문에, 생계를 부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죽음 또는 이별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생존의 기반을 흔드는 일상의 불안정과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죽음이나 이별을 통해 존재자가 부재한 상황은 ‘없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관계의 상실과 그로 인한 실제적인 고통과 불안정이 ‘찾아옴’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린 자녀들의 생존은 부모의 존재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죽음이나 떠남은 자녀들의 생존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친밀한 관계를 상실한 이들이 겪는 이러한 ‘빈자리’의 체험은 생존적인 불안정과 함께 실존적인 아픔을 수반하는 사건이다. 이는 존재자는 부재하나 존재자의 ‘빈자리’는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남아 현존하는 ‘모순의 체험’이기도 하다. 다섯 살 어린 나이에, 폐암으로 아버지를 잃은 참여자 다니엘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늦둥이 아들이라 곱게 자랐던 아빠. 농사를 하기 싫어했던 아빠는 사우디로 일을 하러 가셨다. ‘저 집은 사우디에 안가도 되는데, 저 아들은 갈 애가 아닌데...’ 동네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는 게으른 아빠가 사우디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다. 엄마는 딸만 줄줄이 넷을 낳아놓고, 농사일은 하나도 안하고 사우디로 간 아빠를 원망했다. 엄마의 인생을 완전히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나쁜 아빠... 그런데 나에게서는 아빠에 대한 좋은 추억이 남아있다. 아빠가 사우디에서 돌아올 때면, 아빠는 나를 번쩍 안아 비행기를 태워주셨다. 그리고는 신기한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셨다. 3D 낙타 사진, 호랑이 사진... 오늘도 어?! 아빠가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아빠~!” 나는 아빠에게 힘차게 달려가 아빠의 품에 안겼다. 그런데... 꿈이었다. 아빠는 오늘도 이렇게 신기루처럼 나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꿈에서 깨고 나면 우리 아빠는 더 이상 내 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장면이 나의 꿈에 자꾸만, 자꾸만 나온다.

(참여자 다니엘의 회상 중에서)

타인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살아있는 자는 ‘부재’ 그 자체의 공허를 느끼며, 타인을 향한 그리움과 외로움의 정서를 키워가게 된다. 친밀함을 공유하는 신체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라짐은 존재자의 빈자리를 더 깊이 확인하게 되는 상실과 외로움의

체험이 된다. 이는 지향의 대상이었던 타인이 사라지고, 타인을 향한 지향성만이 방향을 잃고 덩그러니 남게 된 관계 상실의 체험이라고 볼 수 있다. 가까운 타인의 부재는 그리움을 넘어, 외로움과 상실감, 버려진 느낌과 같은 실존적 차원의 결핍으로 이어지면서, 특정한 존재의 정서와 분위기, 더 나아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 거주와 불안정

레비나스(Levinas, 1947·1979)에게 ‘거주(居住)’란 존재자의 피난처가 되는 곳이며 자기를 정립하는 삶의 형태 중 하나이다. 존재자는 거주를 통해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피난처를 삼는다. 그리고 친밀성의 공간 안에서 좀 더 깊은 자기의식을 형성하고자 한다(강영안, 2005: 33-34). 그런 의미에서 ‘거주’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안에 살고 머무르는 것 이전에, ‘자신 안에’ 살고 머무른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거주’라는 것은 존재자가 자신의 신체 안에서 자기를 정립하며 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주체의 안정감을 얻는 ‘거주’라는 삶의 형태가 타자 체험으로 인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나는 대화를 통해 세 참여자들 모두가 유년시절에 ‘거주의 불안정’을 겪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물리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관계의 불안정을 내포하는 체험이었다. ‘집’이라는 공간은 내밀한 가족관계가 살아 숨쉬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상의 ‘체험된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는 자녀가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며 부모로부터 먹거리를 제공받고, 사랑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하는 책임있고 친밀한 돌봄의 관계를 전제한다. 하지만 자녀는 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돌봄이 결여된 가족관계는 자녀에게 생존을 위협받는 상처와 고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참여자 안나가 유년시절에 체험한 방치와 배고픔은 가족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비롯된 상처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참여자들의 삶에서 ‘거주’의 문제가 부모와의 ‘관계’의 문제만큼이나 비중 있는 상처와 고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내가 6학년 때 이사 왔을 때 동생은, 큰 집에 있었어. 큰 집에 할머니가 계시고 하나까... 큰 집에 있다가, 근데 6학년 때, 거의 아빠가 집에 안계셨어. 집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나 혼자 되게 많은 시간들을 있었던 거 같아. 그래서 맨날 굶고, 하루에 한 끼? 하루에 한 끼 먹는 정도. 그것도 주인집에서 얹혀서. 왜냐하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 그때는, 주인집에서 얹혀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정도.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려고 하는데 그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는 다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되는 시기였으니까.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아빠가 오지도 않고, 등록금도 낼 수도 없고. 그 근처에 작은 집이 있어서 작은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작은 엄마도,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 그러면서, 그리고 있다가, 아빠 아는 분을 통해서 서울로 가게 된 거지. 공장오로.

(참여자 안나와 나눈 면담 중에서)

참여자들이 체험한 가족관계의 깨어짐은 생존과 실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의 존재에 고통스러운 상처와 추운 기억들로 각인되어 있었다. 또한 가족관계의 깨어짐에 가난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참여자들의 유년시절은 돌봄의 부재와 방치로 이어지게 되었다. 부모로부터 돌봄이 부재한 상황은 ‘존재의 불안정과 결핍’을 야기했으며, 무엇보다 먹거리가 부재한 상황 속에 방치된 경우는 뺏속 깊은 곳까지 고통이 각인되는 상처를 만들기도 했다. ‘집’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존재하더라도, 그 안에 기본적인 먹거리와 돌봄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면 존재자는 집안에서도 불안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거주 불안정은 존재자가 세계로부터 잠시 피해 쉽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빼앗아가는 체험이기도 하다. 불안정함 속에 놓여있는 존재자는 최소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도피처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외부와 고립된 채 더욱 힘을 주고 애를 쓰는 존재 방식을 갖게 된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내면의 방어벽을 더 견고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지켜내고 보호하고자 애써왔다.

(3) 노동의 애씀

레비나스(Levinas, 1947·1979, 강영안 역, 1996: 65)는 자연과 먹거리 등 주변세계를 “향유(*jouissance*)”하면서 존재자는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과의 관계”를 맺고 세계를 이해해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는 여전히 존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협적인 환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자는 세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필요로 하며, 세계의 위협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힘을 갖고자 노력한다. 레비나스는 그러한 존재자의 노력이 바로 ‘거주’와 ‘노동’을 통해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강영안, 2005: 34). 참여자들은 가족관계가 깨어지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가장으로서의 짐을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나눠져야 했다. 자본이나 학력과 같은 소유 양식이 밀접하게 맞물려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Fromm, 1976), 참여자들은 가난으로 인해 겪어야했던 고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억척스럽게 일을 하며 가난으로 인한 수치의 감정을 극복하고자 고투했다.

폐병으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가난이 찾아왔다. 가난은 나에게 수치스러운 기억을 만들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 대학교 때, 나는 과외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다. 혼자 과외로 돈을 벌어서 새벽 같이 수영도 다니고 운전면허도 땀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한 장면, 한 장면... 내 눈 앞을 쭉 지나가기 시작한다. 너무나 외로운 모습, 마치 고아와 같이 버려진 모습들...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나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그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어요?’

(참여자 다니엘의 회상 중에서)

근데 나는 뼈에 금이 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가 병원을 안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 그런 생각하면 또 엄마에 대한 생각이 욱하고 올라오긴 해. 어. 내가 다리가 짝 다리가 심한 경우도 다리가 다쳤는데도 그냥 동네에서 피만 빼고 병원 한번 안 갔잖아. 분명히 사람들이 인대가 늘어나고 뼈 검사도 해야 된다는데, “됐어. 됐어.” 학교도 못 갔거든. 다음날. 그러면 다른 엄마 같으면 데리고 갔을 거야. 근데 “그냥 하루 쉬어! 그러면 돼.” 얼마나 돈이 든다고 그렇게... …(중략)… 돈 한 푼이 아까워가지고, 방 한 칸에 살고 이랬으니까. 내가 요강도 비우러 다니고 이런 상황이긴 했지만. 어렵게 사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다시 가난에 가난하게 되고, 우리 아이를 또 돈에 전전공공하면서 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 이런 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왔어.

(참여자 마리아와 나눈 면담 중에서)

참여자들에게 노동의 애씀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노동의 애씀은 소유나 성취를 통해 존재자의 주체성을 확인하고 가난의 수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존재자를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즉 기본적인 쉼과 여유를 상실한 노동의 굴레에 갇히게 만들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존재자는 자신을 정립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동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존재와 삶의 무게를 다시 발견하게 된다(Levinas, 1947·1979, 강영안 역, 1996: 74). 가난을 극복하고 주체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노동의 무게 아래에서 존재자는 오히려 주체의 소외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유년시절부터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낯선 타자를 마주하면서, 자신의 주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고투했다. 죽음, 이별, 가난, 고통과 같은 모습으로 참여자들의 삶에 침범한 낯선 타자는 그들의 존재와 삶을 깨뜨리고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참여자들은 유년시절 가족관계의 상실과 깨어짐을 겪으면서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잃게 되었다. 부모로부터 돌봄이 부재한 상황으로 인해 그들의 거주는 외부의 위협에 노출된 채로 불안정해졌다. 불안정한 거주와 가난의 수치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던 고된 노동으로 인해, 오히려 참여자들은 자신을 정립할 수 있는 쉼과 여유를 잃게 되었다. 이러한 삶의 굴레 속에서 참여자들은 타자로부터 자신의 내면성을 더 견고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존재를 형성해왔던 것이다. 타자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적·실존적 몸부림과 애씀, 이를 통해 형성된 거칠고 방어적인 존재의 겉은 타인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처 입은 내면을 초월하여 타인을 만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했으며, 그러한 대화는 어떠한 과정과 성격을 갖는 것일까?

V.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

손봉호(1995: 57)는 “고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통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스캐리(Scarry, 1985)는 고통은 “다른 어떤 현상보다 더 언어로 객관화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한다(손봉호, 1995: 63 재인용). 이처럼 상처의 고통은 존재자에게 주관적이고 사적이며 외롭게 체험될 뿐만 아니라, 언어로 객관화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을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함께 나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러한 만남과 대화가 인간의 실존적 삶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참여자들과 나누는 대화는 존재자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상처의 근원을 함께 찾아가며,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 자신과 관계를 맺은 타자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과 타자가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었다. 참여자들과 나누는 대화 체험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우리의 대화가 상처의 근원을 향해 가는 ‘지향적 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치유적 대화’는 내면의 상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더불어 주체와 타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성을 토대로 실현되는 대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잠정적인 개념화를 통해 보다 주제적인 관심을 갖고 대화 체험에 접근하면서,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1. 치유적 대화의 과정

(1) 타인과의 관계 형성

참여자들과의 만남에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은 서로를 향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나는 수심이 가득한 타인들의 낯빛을 마주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고민이 무엇일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수심이 담긴 얼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타인을 향한 일종의 ‘말 건넌’과도 같았다. 타인의 얼굴로 표현된 느낌이나 인상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주체가 타인을 향한 ‘무관심’ 속에 있을 때는 타인을 향한 ‘지향성(intentionality)’ 자체가 결여된다. 그것은 일종의 ‘비지향적’ 체험으로서 대상과의 관계가 결여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심은 타인을 향한 ‘지향적’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한다. 조용환(2012c: 13)은 관심을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 맺기”라고 말한다. 이때의 관심은 존재자와 타자 사이의 표면적 관계를 넘어선 존재적 차원의 관계 맺음을 통해 가능하다. 존재자들은 서로를 향한 다양한 관심의 깊이 속에서 특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존재를 향한 지향적 관심’은 가장 깊은 차원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는 내면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타인의 얼굴과 그의 존재를 향한 지향적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타인의 내면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나는 타인이 얼굴을 통해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그들의 얼굴 너머에 있는 오래된 존재의 고통에 주목하게 되었다. 나는 일상적인 만남 속에 있던 참여자들의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책임과 무게를 느낄 때가 많았다. 때로는 타인을 향한 마음 쓰임이 나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들을 통해 느껴지는 막연한 고통에 함께 사로잡히는 것 같은 체험을 하였다. 참여자 마리아가 청력이 손상되어 입원을 했을 때, 나는 타인을 향한 아픔과 연민으로 가슴을 앓는 ‘공홀’의 감정을 체험하게 되었다. 마

리아와의 만남에서 체험한 공황이라는 사건은 타인의 존재를 향한 강력한 관심과 지향성 속에서 타인의 몸과 마음의 고통에 응답하고자 하는 일종의 타자 체험이었다. 나는 그날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2013년 8월 31일, 나는 우연히 마리아의 입원 소식을 들었다. 마리아의 시아버지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모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이 충격으로 마리아는 청력에 손상을 입어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치 오래 전부터 알았던 소중한 친구가 아픈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나의 마음에 밀려왔다. 나는 무작정 마리아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마리아를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집사님의 가슴과 귀에 손을 대고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마리아는 나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 주었다. 나의 왼손은 마리아의 가슴에, 오른손은 마리아의 귀에 가만히 대고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고쳐주세요...” 나의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다. “지혜야, 고마워. 내 마음 답답한 거 어떻게 알고, 막혔던 가슴이 시원해진다.” 나는 마리아에게 성경 구절을 적은 편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 병원비에 도움이 되고자 현금을 담았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기 23장 10절)”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랐다. 2013년 9월 1일, 병문안을 갔다 온 다음 날, 마리아와 나는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날의 만남 이후로 마리아의 귀가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연구자의 회상일지 중에서)

나는 참여자들과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그들의 내면에 상처 입은 존재의 고통을 호소하며 돌봄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의 얼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레비나스의 말처럼, 타인의 얼굴에 나타난 호소에 주목함으로써 주체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책임적 존재”로서 타인 앞에 세워지게 된다(강영안, 2005: 185-186). 나의 경우 참여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얼굴에 대한 관심과 그 호소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돌봄의 행위’를 통해 표현되었다.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쓰임과 돌봄의 책임 속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며, 우리의 대화는 존재의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것은 고립된 주체의 내면성으로부터 벗어나 타인과의 진실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대화 관계의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참여자들과 나는 치유적 대화는 관심과 돌봄의 행위를 통한 감성적, 정서적 차원의 교감이 대화 관계의 근원적인 측면을 형성하고 있었다.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에서는 언어적 차원의 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차원의 교감이 깊은 대화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진정성 있는 관심과 돌봄을 통해 깨어지

고 결핍된 실존 범주로 존재하던 ‘관계성(relationality)’의 차원이 새롭게 채워짐으로, 참여자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맺으며 자신의 내면을 열어갔다.

(2) 상처에 대한 자각

타인의 내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타인의 상처 입은 존재의 고통은 나에게 막연한 느낌이나 분위기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타인의 존재로부터 오는 느낌이나 분위기는 마음의 답답함이나 무거움 같이 나의 신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막연한 양상에서나마 그들의 상처를 짐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과 나는 아직 상처의 근원을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었다. 상처의 근원에서 비롯된 존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상처의 고통이 자리한 의식의 심층과 체험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대화가 필요했다. 특히 유년시절부터 받은 상처는 자각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의 깊숙한 곳으로 파고 들어가 상처의 근원을 형성하면서 특정한 존재의 분위기와 정서를 만들었다. 이러한 분위기와 정서는 무의식을 포함한 의식의 전체 흐름 속에서 존재자를 사로잡고 에워싸고 있는 그 무엇, 즉 ‘존재함’의 독특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³⁾

셸러(Scheler, 1923)는 인간이 타인을 인식하는 다양한 감정 현상들을 연구하면서, 한 존재자의 감정을 다른 이가 함께 느끼게 되는 ‘공감’ 현상에 주목한다. 타인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감정뿐만 아니라, 비자의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감정 현상은 존재의 분위기와 정서, 기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현상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기분’이 존재자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실제적인 느낌으로 전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분이나 정서, 분위기는 존재자 안에 거하면서도 타인을 향해 열려 있는 존재함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존재자가 어떠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은 타인을 향해 표현되거나 발산됨으로써 언어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의 존재 상태를 드러낸다. 기분이나 정서, 분위기는 존재의 근원적인 상처와 고통을 타인에게 막연하게나마 표현하는 존재자의

3) 레비나스(Levinas, 1947·1963, 서동욱 역, 2001: 32-42)에 따르면, 존재 상태는 내용이나 명사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으로 존재한다. 그는 권태나 무기력과 같은 ‘기분’이 존재자의 존재함 자체를 동사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본다. 하이데거(Heidegger, 1927·1972)의 “기분잡혀 있음”이라는 현상 또한 존재자를 사로잡고 있는 특정한 존재의 상태와 분위기를 동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존재 방식인 것이다.

나는 참여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에게서 느껴지는 막연한 분위기와 정서가 그들의 상처의 근원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점차 이해할 수 있었다. 참여자 다니엘에게서 막연하게 느껴졌던 답답함과 초조함의 분위기는 ‘아버지의 부재’가 가져온 상실감과 외로움에 근원적인 뿌리를 두고 있었다. 다니엘에게서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자신의 힘으로 붙잡고자 하는 강박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때 내 상태가 어땠다면, 성령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성령님을 만나서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고, 내 눈 앞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라는 두려움이 같이 있었던 때야.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을 쓰는 걸 보면, 이제 운동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어. 성경을 혼자 읽어. 기도를 해. 그럼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후에 다시 성경을 펴 들어. 무슨 일을 하듯이 그 일을 자꾸 반복을 하는 나의 모습이... 아~ 그러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기쁘고 즐겁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의무감처럼 계속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야. ... (중략)... 그때 그래서 고백을 한 거야. 그때 지혜한테 고백했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좋은데 내가 돌아서면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을 때, 지혜가 아버지의 부재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나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는 연관을 시켜본 적이 없거든. ... (중략)... (눈물이 고이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무 좋지만,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돌아서면 하나님은 나랑 끝 아닌가?’ 이런 생각.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지혜가 해 준 얘기가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라고. 강하게 붙들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하고 아빠하고 틀리구나[다르구나].’ 이제 이런 정도의 지각을 했던 것 같아.

(참여자 다니엘과 나눈 면담 중에서)

정서와 분위기라는 것은 뚜렷하게 자각할 수는 없지만, 유년시절에 형성된 존재의 상처와 막연한 형태로 결부되는 경우가 있다.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치유적 대화는 존재자를 둘러싸고 있는 막연한 정서와 분위기가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상처와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그 지향적 관련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와 상처의 지향적 관련은 자기 성찰을 통해 존재자 스스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처의 근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타인의 조력과 대화를 통해 발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참여자들의 경우 신앙을 기반으로 한 만남이라는 특성상, 타인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의 과정 모두를 통해 상처의 근원에 직면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서와 분위기가 향하고 있는 대상, 즉 존재 깊숙이 자리한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신을 사로잡았던 막연한 존재의 분위기가 과거의 상처들과 어떠한 지향적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인식의 빛 아래서 분위기와 상처의 지향적 연관을 찾게 되었을 때, 존재자는 때때로 자신을 엄습하고 지배하던 막연하고 익명적인 분위기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주체성을 점차 회복해갔다.

(3) 상처의 고백과 응답

상처는 왜 고통 받는 이의 내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인에게 표현되려는 것일까? 상처와 고통이 존재자의 정서와 분위기를 형성하는 차원을 넘어, 언어와 대화로써 타인에게 표현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처와 고통을 타인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인간의 실존적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손봉호(1995: 78)는 “고통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며, 철저히 사적이면서도 공적이 되려는 충동을 가진 독특한 경험”이라고 말한다. 또한 고통은 언어를 거부하고 파괴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유와 언어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험”이라고 말한다(손봉호, 1995: 78). 고통은 이처럼 우리의 내면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누군가에게 표현되고자 하는 강력한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고통을 호소하는 단순한 외침을 넘어,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공감 받고자 하는 ‘소통의 갈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통의 갈망은 나의 고통을 아무와도 나눌 수 없다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넘어 존재자가 타인을 향해 한발 더 다가서도록 촉구한다.

일상적인 함께 있음의 상태에서 깊은 차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존재자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더불어 놓여 있다. 참여자들에게 ‘관계의 상실과 깨어짐’이 상처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존재(*Mitsein*)”로서의 현존재(*Dasein*)가 처한 실존에 기반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Heidegger, 1927·1972, 이기상 역, 1998: 168). ‘더불어 있음’이 결여된 ‘혼자 있음’의 상태가 지속될수록 오히려 타인과 진정으로 만나고 소통하고자 하는 갈망은 주체 안에서 깊어지며, 이러한 갈망은 주체를 자신의 내면 ‘바깥에’ 서도록 촉구한다. 참여자들은 ‘자기 보호’와 ‘타인과의 소통’이라는 내적 갈등과 이중의 갈망 속에서, 오랜 시간 머뭇거리며 깊은 상처를 나

누기 위해 자신의 밖으로 나아와 타인에게로 한걸음 다가갔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열어 보이기까지 존재자가 보여주는 이 ‘머뭇거림’의 시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시간이었다.

참여자 마리아는 자신의 얼룩진 삶을 열어 보였던 고백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서 난방을 할 수 없었던 마리아의 거실에는 텐트가 세워졌고, 나는 텐트 안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를 늘 따라다니던 타인들의 정죄와 판단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숨겨둔 가족관계, 전남편과 항암치료 중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마리아: 지혜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또 한 번 나의... 어떻게 보면 그거를 허물 아닌 허물?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무턱대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근데, 너무 추운 가운데 그 텐트가 세워지고 그 텐트 안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내가 그때 혼자 그랬던 거야. ...(중략)... [지혜가] “집사님이 그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데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랬어. 그래서 “그럼 와 볼래?” 그랬지. 근데 입김은 허~ 나는데.

연구자: (웃음)

마리아: “진짜 춥다.” 그래서 “들어와. 들어와.” 그러고, “저기 안에는 괜찮아.” 그러고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때 ‘얘기하고 싶다’라는 게 확 밀려왔어. 왜냐하면 너라면 어... 그냥... (밝고 명랑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정적이 흐른다.) 그냥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 필요했거든 사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 불쌍한 사람. 내 아이인데도 내가 기르지 못했으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냥... 얘기하면, 누군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 기도를 하면, ‘지혜가 기도를 하면 진심으로 기도해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야, 사실은. 중보자가 필요했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거든. 내가 얘기가 있다고 아는 사람들도 그냥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뿐이었지, 그 삶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냥, 바라보는 시선은. 내가 또 예민하니까 다 알잖아. ‘아. 재 저런 애’ 이런 시선을 늘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들을 안다고 해도 ‘기도해주세요.’ 말도 못했어. 내가 먼저 정죄당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정죄당하고 있는 애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정말 중보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 그래서 자기한테 고백을 했던 거야.

(참여자 마리아와 나는 면담 중에서)

치유적 대화는 신뢰하는 타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처 입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열어 보이는 ‘고백적 언어’를 통해 무르익었다. 참여자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열어

고백하게 된 이 대화의 순간은, 존재자가 ‘사회적 형식’을 벗고(Levinas, 1947·1963) 자기성에서 나아온 순간이었다. 그것은 상실과 깨어짐, 불안정과 결핍, 어두움과 갈등이 혼재하는 자신의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타인에게 열어 보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존재에 있는 상처와 약함을 타인에게 진정성 있게 열어 보임으로써, 자신의 내면성을 견고히 하던 방식에서 나아와 비로소 자신과 타인 ‘사이’에 설 수 있었다. 이처럼 존재자가 자기성을 뚫고, ‘나와 너 사이’에 마주 서는 존재의 체험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Buber, 1923). 타인과의 접촉을 갈망하며 자신의 존재를 열어 보이는 대화는 타인을 ‘너’라는 존재와 인격으로서 마주하게 한다. 이는 두 인격 사이의 ‘관계’에 들어서는 순간이며, 사회적 형식을 벗은 ‘나와 너’의 질적인 만남이 무르익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 안나와 나는 대화 또한 타인을 깊은 존재의 차원에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하게 된 순간이었다. 나는 참여자 안나가 오랜 머뭇거림 끝에 상처와 고통으로 남아 있는 자신의 가족사를 나의 집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안 나: 성인이 돼서 엄마를 만났는데,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가 그래도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너무 삶에 찌든 모습인 거야. 내 기억 속에 있는 엄마의 모습은 사라지고, 고생한 엄마의 모습만 남아있는 거야. 우리를 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호느끼는 안나의 마음에는 엄마를 향한 연민과 원망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것 같았다.) 아빠는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최근에 친척 분에게 아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내가 전화 하면 아빠는 왜 전화했냐고 화만 내시고... 아빠가 나를 매몰차게 밀어내서,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 (안나는 숨죽여 울었다.)

연구자: (순간 나의 마음도 함께 아파왔다.)

안 나: 못 배운 게 그렇게 한이 돼. 내가 더 배웠다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안나는 한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연구자: (나는 호느끼는 안나에게 다가가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안 나: (안나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한참을 울었다.)

연구자: (나도 안나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를 위한 기도가 흘러나왔다. ‘사랑한다. 안나야.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 품에서 이제 쉬렴.’ 안나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안나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불을 가져왔다.)

안 나: (안나는 이불 위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연구자: (안나가 누워있는 동안 나는 기타를 연주하며 조용히 한 찬양을 불러주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안 나: (울고 있던 안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다.)

연구자: (나도 잠잠히 안나의 곁에 누워 쉬면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흐른 것 같았다.)

(연구자의 회상일지 중에서)

나는 상처를 고백하는 대화의 순간에, 참여자들의 존재에 ‘응답하는 이’로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다. 타인의 고백을 향한 나의 응답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언어적 측면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두 눈의 마주침과 진지한 표정, 기다림의 침묵, 경청과 공감을 표현하는 끄덕임, 함께 아픔을 느끼는 눈물과 안이즘의 몸짓 등으로 표현되는 비언어적 측면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대화라는 구분이나 경계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마주 대하고 있는 ‘나의 존재 전체’에 관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나에게 상처의 아픔을 호소하며, 인격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비대칭적’으로서 있는 ‘타인의 얼굴’로 다가왔다(Levinas, 1947·1979; 강영안, 2005: 151). 상처를 고백하는 이는 타인으로부터 또 다시 상처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서도 자신의 밖으로 나와 타인 앞에서 있었다. 이때 ‘고백하는 이’와 ‘응답하는 이’는 대등한 관계가 아닌 비대칭적인 관계의 구도에 놓이며, 관계의 무게중심이 상처를 고백하는 타인에게로 옮겨지고 있었다. 상처를 고백하는 타인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가운데, 주체는 타인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 고통의 호소에 응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응답은 자신의 주체성을 깨고 자신을 초월하여 타인의 존재로 향하는 ‘타인 지향적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상처의 고백’과 ‘존재를 기울인 응답’은 나와 너 모두가 자신의 내면성을 초월하는 존재사건 속에서 이뤄지는 존재적 차원의 만남과 대화라고 볼 수 있다.

(4) 삶에 대한 이해와 존재의 회복

자신의 상처 입은 존재를 열어 보이는 고백적 대화와 상처를 고백하는 이에게 온

존재를 기울인 응답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내면의 치유를 체험하였다. 나는 참여자들이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존재의 모순을 견뎌내는 내적인 힘을 갖고 지나온 삶을 의미있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깨어진 실존 범주가 회복되는 실제적인 변화들 속에서 내면세계가 점차 안정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사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때 혼란과 고통을 느낀다. ‘살아 있음’ 자체는 죽음과 고통을 함께 떠안고 있는 모순적인 사태로서, 존재자에게 그 의미를 물어오며 존재자의 살아 있음을 괴롭히기도 한다.

하이데거(Heidegger, 1927·1972)는 존재자가 존재물음을 던지며 자신의 존재함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을 현존재의 실존으로 본다. 현존재의 실존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다. 타인을 포함한 타자는 가족의 죽음이나 헤어짐, 질병이나 물질적 고난과 같이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다가와 존재자의 존재와 삶에 상처를 입힌다. 존재자의 일상성을 깨뜨리는 타자의 엄습은 의미의 깨어짐과 혼란 속에서 존재의 모순을 일으킨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처의 고통 속에서, 존재자는 부정의 긴장과 상처로 아파하며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상실하기도 한다.

헤겔(Hegel)은 모순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신을 재생산하는 것은 자기 안의 모순을 견뎌내며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생동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한다(김준수, 2012: 327). 존재자는 존재의 모순을 떠안고 실존하면서도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모순적인 삶의 조각들을 총체적인 의미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생동성을 가질 수 있다. 참여자들과 깊은 대화를 마친 후, 나는 참여자들에게 공통된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상처를 고백하며 지난 삶을 구술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의미 있는 전체로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생애에 대한 구술을 통해 참여자들은 타자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존재와 삶의 모순을 견뎌낼 수 있는 해석적 힘을 갖게 되면서 다시금 생의 의지를 일으킬 수 있었다.

내 기억 속에, 삶 속에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뭐 그런 존재인데, 그냥 존재 자체를 내가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우리 엄마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아빠는 한량이었고, 도박했고, 먹지도 못하는 술 먹어서 맨날 토하는 사람이었고, 엄마를 구타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요. (웃음) 근데 감사하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빠는 사우디 가서 선물 사 가지고 오시는 아빠. 나를 [안아서] 비행기 이렇게 태워주잖아요. 비행기 태워주던 아빠. 자전거 뒤에 새우깡 실어갖고 오시던 아빠. 그 모습이 남아있어. 나한테는. 그리고 병풍 뒤에서 피 토하시던 아빠. 그러니까 나는 좀 아빠가 가여우신 분. 그냥 나 사랑해주시던 장면 장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중략)… 나이로는 한 다섯 살? 그때 기억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나를 낳아주신 아빠가 있다는 거. 내 아빠가 나에게 소중한 사랑의 기억을 남겨주고 가셨다는 그 사랑의 기억들을 더듬더듬 더듬거리면서 내가 찾아갔던 기억들이. 그냥 아빠의 모습이, 그런 기억을 남겨주신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빠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중략)…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풍성하신 아빠인 거예요. (웃음) 하나님이 내게 뭐 부족해 갖고 나에게 이거는 주고 [이거는] 안주고 그런 아빠가 아니라, 그냥 너무 부요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다가 눈물을 흘린다.) 다 주고 싶어 하는 그 아빠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서른아홉에 곱게 자라서 뭘 어떻게 감당해야 될 지도 모르는 아빠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남겨주신 기억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부요하신 어떤 것을 가지고… (다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냥 나에게 다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참여자 다니엘과 나는 면담 중에서)

나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막 보여지고 막 이렇게 크게 막 역사하고 이런 게 없는데, 없는 거 같은 (웃음), 다니엘처럼 그런 거는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를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고, 치유해 나가시고, 회복시켜 나가시고 그랬던, 다 하나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 결국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의 방식으로 나를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얘기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때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역사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치유될 수가 있었구나.’ 지금 내가 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뭔가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물론 완성되어있지 않지만 (웃음). 완성되어있지 않지만, 음.

(참여자 안나와 나는 면담 중에서)

참여자 다니엘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다니엘은 타자와의 단절된 관계성을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인하면서 존재의 결핍을 채워갔다. 참여자 안나는 흩어졌던 기억의 퍼즐을 맞춰가며 지나온 삶을 구술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고통이나 수치 이상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신만의 고유한 삶의 스토리로 승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는 ‘해석’과 ‘자유’라는 실천적인 두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다. 치유적 대화는 모순적으로 엄습하는 상처나 고통과 같은 타자의 의미를 총체적인 삶의 스토리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점차 상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존재론적

해석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참여자들은 타자와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정립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깨어졌던 실존 범주들을 균형적으로 회복해 갔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의 삶에서는 깨어진 시간과 관계의 회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유년시절의 체험은 참여자들의 존재에 깊은 상처를 만들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현재가 과거의 시간에 속박되도록 만들었다. 과거에 속박된 현재는 “자신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자유”(강영안, 2005: 101)를 상실한 채, 그들의 삶이 혼란과 절망 속에 머물고 정체되도록 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들은 이제 존재자 안에서 현재와의 의미 있는 연결을 가지며 소망스러운 미래로 나아갈 동력으로서 그 의미를 재형성하게 되었다. “과거와 미래가 살아있는 현재”(조용환, 2012b: 27)를 되찾음으로 깨어진 시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타자와의 관계성의 회복과 켈 수 없었으며, 관계의 회복은 시간의 회복을 이뤄가는 계기와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상처의 아픔을 함께 짊어진 인격적인 대화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타자’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깨어지고 결핍된 실존 범주에 안정적인 의미의 기반을 놓는 총체적인 회복의 과정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치유적 대화의 주요 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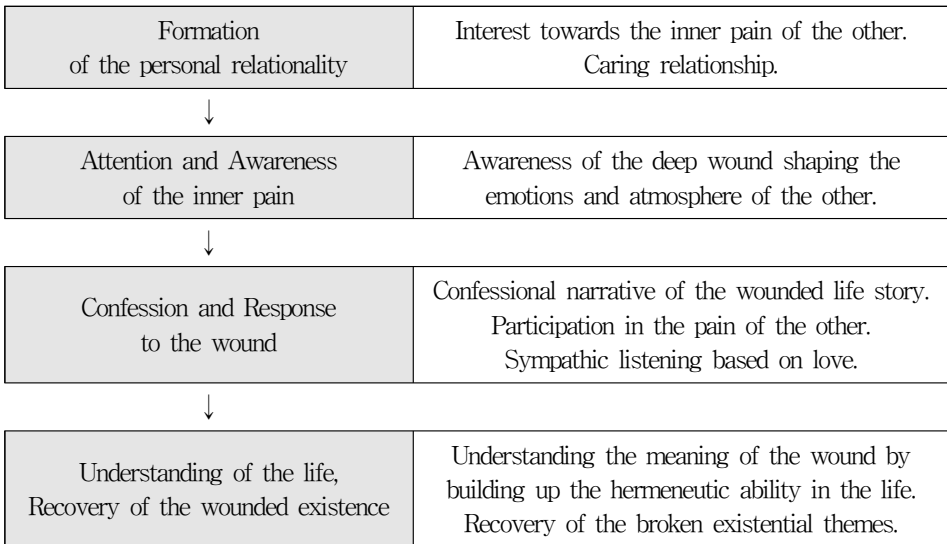


Figure 1. Process of healing dialogue

2. 치유적 대화의 성격

나는 참여자들과 나는 생활세계의 대화 체험이라는 ‘현실태’를 기반으로 치유적 대화가 전개된 과정과 양상을 살펴보고, 치유적 대화의 다섯 가지 속성을 도출하였다. 다음에서는 내면성, 심층성, 내러티브성, 공감성, 윤리성의 다섯 가지 속성을 통해 구현되는 치유적 대화의 성격을 정리해보았다.

(1) 내면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치유적 대화는 타인이 표현하는 내면의 상처와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두 인격 간의 만남은 타인의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한 대화의 시작점이 된다. 그런데 타인의 내면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으며, 이는 신체나 표정, 정서나 분위기 등을 매개로 표현되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치유적 대화에서 주목하는 ‘타인의 얼굴’은 그의 존재를 막연한 전체로 나타내면서 존재자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 중 하나이다. 홀로 질 수 밖에 없는 상처와 고통은 누군가와 나눌 수 있기를 갈망하며 존재자의 얼굴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존재자는 ‘얼굴’이라는 표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표현하며, 동시에 외부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레비나스는 소통을 갈망하며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호소, 즉 ‘타인의 얼굴’을 통해 타인과 인격적, 윤리적 관계 맺음이 시작된다고 말한다(강영안, 2005). 이러한 얼굴의 “벌거벗음”과 “자기 표현, 곧 말 건네움은 얼굴이 타자로서 나에게 현상하고 나에게 소통 관계를 터옴을 뜻”하는 것이다(강영안, 2005: 180). 타인의 얼굴을 통해 발화된 깊은 고통에 주목할 때, 타인에 대한 일상적 관심이나 외적 행위에 대한 관심은 그 내면을 향한 실존적 관심으로 전환된다. 궁극적으로 치유적 대화에서 주목하는 것은 고통과 상처의 근원이 자리한 타인의 총체적인 내면세계에 있으며, 타인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상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면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대화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2) 심층성

인간 내면의 질적인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인간 존재의 심층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존재의 심층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연관된다. 후설(Husserl)은 그의 후기 현상학에서 기분이나 정서를 ‘무의식적인 지향성’의 한 형태로 설명한다. 후설은 “사랑, 비굴함, 원한 등의 정서와 그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동기 지워진 행동방식”이 의식의 심층에 “무의식적 지향성”으로서 자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이남인, 2004: 310 재인용). “체험의 밑바닥에서 작동하고 있는 저 어두운 지향성의 심층”, 다시 말해 “근원질료적인 것”(이남인, 2004: 383)에 특정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무의식적 지향성이 놓여있는 것이다. 이렇듯 막연한 분위기와 정서의 형태로 표현되는 상처의 근원은 아직 의식과 대상, 즉 노에시스(*noesis*)와 노에마(*noema*)의 상관관계가 불명료한 존재 상태에 놓여있다. 존재자를 통해 느껴지는 막연한 정서와 분위기는 존재의 심층에 자리한 상처와 무의식적인 지향성을 가지며 자신의 존재 상태를 발산한다. 또한 내면에 있는 상처의 근원은 존재자가 세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관계 맺도록 추동하게 된다.

그러나 막연한 양상으로 느껴지는 존재의 심층을 보다 직접적으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마치 ‘고고학적 탐구’(Freire, 2000)와 같이 타인의 내면을 이해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상처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가는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유년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의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고통의 발생적 연원을 찾아가며, 존재의 심층에 자리 잡은 상처의 근원에 마주하게 된다. 이는 의식의 표층에서 심층으로 천천히 들어가면서 자신의 존재와 삶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론적 발생의 토대와 구조’(이남인, 2004: 403-404)를 이해하는 심층적인 대화 과정을 의미한다. 내면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면을 형성하고 있는 존재의 토대가 현재의 나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통해 현재의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의 발생적 토대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내면세계가 생애사적으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내러티브성

상처의 근원을 발견하는 치유적 대화의 과정은 단지 상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도록 한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은 타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구성하는 내러티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신의 존재와 삶을 열어 보이는 자전적이며 자기 고백적인 내러티브는 존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게 개시하는 행위로서, 주체와 타자의 존재적 차원의 관계 맺음을 가능하게 한다. 상처 입은 존재를 타자와 진정성 있게 나누는 대화의 과정에서, 존재자는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구성해간다. 삶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대화 체험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는 대화의 단계에 놓여있다.

상처의 체험과 지나온 삶을 대화를 통해 구술하는 내러티브는 표현적, 구성적, 해석적 성격을 가진다. 막연한 아픔과 고통으로 밀려오는 존재의 상처를 이야기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존재자는 상처에 직면하고 억눌린 내면의 아픔을 표출한다. 또한 조각난 상처의 체험들을 회상하고 구술하는 과정에서, 존재의 아픔을 유발한 상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존재자는 대화를 통해 상처의 체험들과 자신의 삶을 연결된 스토리로 구성하면서, 조각난 과거의 체험들을 현재적 삶의 의미 있는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에서 이뤄지는 내러티브는 과거의 상처를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4) 공감성

셸러(Scheler, 1923)는 다양한 차원의 느낌의 나눔을 ‘유사 공감’과 ‘본래적 공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유사 공감’ 현상들은 타자의 상태에 전염되어 자기를 잃어버리고 타자에 종속된 감정 상태를 만든다. 예를 들어 ‘감정 전염’과 같이 타인의 체험에 참여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이 비자의적이며 무의식적으로 감정의 상태들이 전이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셸러가 말하는 ‘본래적 공감’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분리된 의식을 전제로 하는 윤리적 분별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아중심적인 방향을 초월하여 타인의 고통 또는 기쁨으로 향하는 지향성을 가진다. 이러한 ‘본래적 공감’에는 함께 기뻐함, 함께 슬퍼함, 연민, 긍휼, 체휼과 같이 다양한 차원의 공감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긍휼과 체휼은 타인을 향한 심층적인 공감의 차원을 표현한 것으로서, 상대방이 겪

는 고통에 대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신체적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신체적인 차원까지 느껴지는 이러한 공감 현상은 주로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이처럼 공감은 다양한 깊이와 차원을 가지고 있으며, 치유적 대화에서 이뤄지는 공감은 단순히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차원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존재의 참여로 나타난다. 치유적 대화에서 이뤄지는 공감은 타인의 고통을 향한 전인격적인 참여로 나아가면서, 타인의 뿌리 깊은 상처와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누고자 하는 공감의 본질을 형성하게 된다. 셸러는 공감이 “사랑에 의존”할 때, “그 한계선을 뚫고서 절대적이고 심오한 인격 영역으로 돌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Scheler, 1923, 조정옥 역, 2006: 160-169). 타인에 대한 존중과 자유를 바탕으로 한 ‘사랑’은 더 인격적이고 지향적으로 타인의 심오한 인격에까지 닿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공감은 ‘사랑에 기반한 공감’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치유적 대화뿐만 아니라 모든 대화에서 사랑과 공감은 상대방의 존재에 참여하는 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유적 대화에서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감적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존재를 향한 적극적인 귀 기울임과 응답의 자세를 표현하고자 한다.

(5) 윤리성

레비나스는 상호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아닌,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비대칭적인’ 관계 속에서 윤리의 개념이 생성된다고 본다. 그는 ‘타인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체를 중심으로 타자를 규정하던 기존의 주체/타자의 관계를 역전시킨다. 레비나스에게 주체성의 핵심은 타인의 고통과 짐을 대신 짊어지며, “타인을 대리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구성”되는 윤리적 주체성이다(강영안, 2005: 228). 그에게 주체됨은 라틴어 ‘수브젝툼(sub-jectum)’의 뜻처럼, 타인의 고통을 아래에서 떠받치며 타인을 위해 ‘대속적 고통’을 감내하는 윤리적 책임 속에서 형성된다(강영안, 2005: 228-229). 레비나스(Levinas, 1947)는 주체의 남성적인 힘과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깨어짐을 통해 타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즉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책임을 통해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치유적 대화에서는 타인을 향한 돌봄의 행위와 타인의 상처를 함께 짊어지는 대속

적 고통이 모두 나타난다.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은 단순한 끄덕임을 넘어 그 고통의 깊이로 내려가 상처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존재의 참여를 의미한다. 치유적 대화에서는 이러한 참여를 통해 고통을 호소하는 상처 입은 타인을 관계의 중심으로 놓으며, 기존의 주체/타자의 비대칭적 관계를 타자/주체의 비대칭적 관계로 재설정한다. 상처를 고백하는 이는 자신의 고통을 듣는 이와 함께 나누고, 듣는 이는 타인의 존재를 떠받치며 그의 고통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치유적 대화 관계의 윤리성을 형성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치유적 대화의 다섯 가지 속성—내면성, 심층성, 내러티브성, 공감성, 윤리성—은 서로 내적 관련성을 맺으며 치유적 대화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다. 상처 입은 내면에 대한 발견과 이해를 지향하면서, 각 속성들은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라는 존재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치유적 대화의 본질적인 성격을 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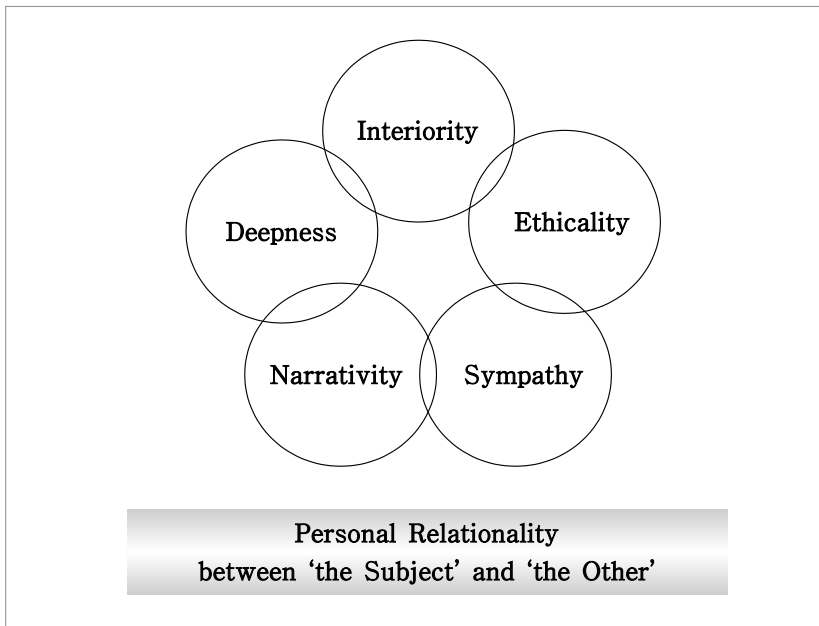


Figure 2. Characteristics of healing dialogue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상을 개념화하기 전에, “사태 자체로(zu den Sachen selbst)” 돌아가 체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학의 문제의식(이남인, 2004: 38-42)을 철학적 토대로 수행하였다. 나는 실제적 체험을 바탕으로 세 여성들과의 대화를 질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처의 발생적 근원을 이해하는 총체적인 대화 과정을 ‘치유적 대화’로 개념화할 수 있었다. 또한 현상학자들의 이론을 활용하여 치유적 대화의 과정과 성격을 주체-타자의 근원적 관계 안에서 고찰하면서,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대화가 내면의 치유와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탐구하였다. 결론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격성이 살아있는 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이 상처 입은 존재의 치유와 회복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고찰하였다.

앞서 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정신분석학과 상담학, 철학, 미학, 간호학 등의 영역에서 내면의 치유가 어떻게 탐구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무의식적 갈등을 이해하고 내면세계의 균형적인 힘을 회복하려는 치료적 관점의 대화는 내담자나 환자의 의식의 심층에 주목한다. 유년시절부터 형성된 내면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심층적인 대화의 과정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대화를 통해 내면세계의 발생적 연원을 검토하는 과정은, 치유적 대화와 내면세계의 탐구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의식이나 심리치료에 초점을 둔 대화는 ‘치료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와 타자의 근원적인 만남을 토대로 한 생활세계의 대화의 형식과는 다소 차이를 갖는다.

정신분석학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자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신적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대화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핵심 감정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심리치료의 관점에 치중되어 있다. 이처럼 치료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남과 대화는 의사나 상담자의 전문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화를 심리치료를 위한 방법적 도구와 기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치유적 대화의 본질적 성격을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생활세계의 맥락에서 구현된 깊이 있는 대화 체험에 주목하여 대화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 대화와 치유의 존재론적 의미와 그 내적 연관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치료방법과 프로그램의 효과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상처 입은 존재의 발생적 연원을 고찰하는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탐구를 통해, 존재와 의식이 주체 안에 고립된 상태로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체적’으로 형성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치유적 대화에서 주체가 타자와 맺은 최초의 관계,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실존적 토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과거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고백과 성찰이 담긴 대화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인식할 수 없었던 상처의 근원에 직면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식과 감정의 구조가 주체-타자의 체험적 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것임을 깨달으며,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로 나아갔다.

또한 치유적 대화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향해가는 총체적 지향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깊은 차원의 관계 맺음과 긴 호흡의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질적인 변화의 과정이었다. 대화를 통해 주체와 타자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진정성 있게 서로의 존재를 열어 보였다. 삶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공감적 연대를 바탕으로, 주체는 타자에 대한 이해가 열리고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실존적 의미를 숙고할 수 있었다. 주체와 타자의 만남에서 관계의 깊이를 체험하고,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로 나아가는 대화의 과정은 사랑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독교 신앙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체험이었다. 치유적 대화는 서로를 인격으로 존중하는 만남을 통해, 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대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고유한 인격으로 존중받은 주체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또 다른 타인을 향해 나아갈 초월의 동력을 얻게 된다. “사랑이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관심이라면 그러한 사랑은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사랑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양자는 서로를 요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박찬국, 2001: 255). 인격적 관계에 바탕을 둔 대화를 기반으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재정립해가는 과정은 타인을 향한 사랑의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타인을 향한 사랑의 지향성과 인격적 관계성을 구현하는 치유적 대화는 내면의 치유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에 작은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Kang, Y. A. (2005). *The Face of the Other: Philosophy of Emmanuel Levinas*. Seoul: Moonji.]
- 공병혜 (2017).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Kong, B. H. (2017). *Philosophy of Caring and Aesthetic Practic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김선희 (2015). **철학상담: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대화**. 경기: 아카넷.
- [Kim, S. H. (2015) *Philosophical Counseling*. Gyeonggi: Acanet.]
- 김수연 (2013). **자전적 서사의 시각화를 통한 트라우마 치유에 관한 작업 연구: 본인의 <가족 시리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Kim, S. Y. (2013). *A Study on the Healing Trauma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Autobiographical Narrations: Based on the Work Family Series*.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김준수 (2012). 헤겔 철학에서 모순과 변증법. **코기토**, 71, 305-34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Kim, J. S. Der Widerspruch und die Dialektik in der Hegelschen Philosophie. *Cogito*, 71, 305-342. Institute of Humanit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 노승수 (2018). **핵심감정 (탐구): 핵심감정의 치유와 성화의 길**. 서울: 세움북스.
- [Ro, S. S. (2018). *Nuclear Feeling (Exploration): Healing of Nuclear Feeling and Way of Sanctification*. Seoul: Seumbooks.]
- 박병준 (2017). 현상학과 철학상담: 행복 수업을 위한 철학상담의 방법론 모색. **철학논집**, 50(Aug), 9-41.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 [Park, B. J. (2017). Phenomenology and Philosophical Counseling: The Methodological Search of Philosophical Counseling for ‘Happiness Class’.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50(Aug), 9-41. Research Institute for Philosophy, Sogang University.]
- 박찬국 (2001). **에리히 프롬과의 대화**. 서울: 철학과 현실사.
- [Park, C. K. (2001). *Dialogue with Erich Fromm*. Seoul: Philosophy and Reality.]
- 손봉호 (1995). **고통받는 인간: 고통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So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이남인 (2001). 상호주관성의 현상학: 후설과 레비나스. **현상학과 현대철학**, 18, 13-63.

한국현상학회.

[Lee, N. I. (2001). Phenomenology of Intersubjectivity: Husserl and Levinas.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y*, 18, 13-63. Korean Society For Phenomenology.]

이남인 (2004). **현상학과 해석학: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Lee, N. I. (2004). *Phenomenology and Hermeneutic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경기: 한길사.

[Lee, N. I. (2014).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Gyeonggi: Hangilsa.]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Jo, Y. H. (1999).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Case*. Seoul: Kyoyookbook.]

조용환 (2012a).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새로운 공교육의 이해와 실천**, 3-15.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Jo, Y. H. (2012a). What Changes Do We Need?.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New Public Education*, 3-15. Seoul: Cen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조용환 (2012b). 교육의 본질에서 본 공교육 개혁의 의미. **새로운 공교육의 이해와 실천**, 19-34.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Jo, Y. H. (2012b). The Meaning of Public Education Reform in the Essence of Education.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New Public Education*, 19-34. Seoul: Center for Education and Train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조용환 (2012c). 교육인류학과 질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1-21. 한국교육인류학회.

[Jo, Y. H. (2012c). Educational Anthrop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The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15(2), 1-21.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한승희 (2004). **평생교육론: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Han, S. H. (2004). *Lifelong Education Theory*. Seoul: Hakjisa.]

Buber, M. (1923). *Ich und Du*.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표재명 역. (1977). **나와 너**. 서울: 문예출판사.

[Pyo, J. M. (1977). I and Thou. Seoul: Moonye. Trans. Buber, M. (1923). *Ich*

- und Du*.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Buber, M. (1943 · 1982). *Das Problem Des Menschen*. Verlag Lambert Schneider · Heidelberg. 윤석빈 역. (2007). **인간의 문제**. 서울: 길.
- [Yoon, S. B. (2007). *The Problem of Human Being*. Seoul: Gil. Trans. Buber, M. (1943 · 1982). *Das Problem Des Menschen*. Verlag Lambert Schneider · Heidelberg.]
- Edwards, S. D. (2001). *Philosophy of Nursing: An Introduction*. 공병혜 · 홍은영 역. (2004). **돌봄과 치유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Kong, B. H., Hong, E. Y. (2004). *Philosophy of Caring and Healing*. Seoul: Philosophy and Reality. Trans. Edwards, S. D. (2001). *Philosophy of Nursing: An Introduction*.]
- Freire, P. (2000). *Pedagogy of Hope*. NY: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Inc. 교육문화연구회 역. (2002). **희망의 교육학**. 서울: 아침이슬.
- [Institute of Education and Culture (2002). *Pedagogy of Hope*. Seoul: morning dew. Trans. Freire, P. (2000). *Pedagogy of Hope*. NY: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Inc.]
- Fromm, E. (1976 · 1978). *To Have or to Be?*. NY: Harper & Row Publishers. 최혁순 역. (1988). **소유냐 존재냐**. 서울: 범우사.
- [Choi, H. S. (1988). *To Have or to Be?*. Seoul: Bumwoosa. Trans. Fromm, E. (1976 · 1978). *To Have or to Be?*. NY: Harper & Row Publishers.]
- Heidegger, M. (1927 · 1972). *Sein und Zeit*. Max Niemeyer Verlag GmbH. Co. 이기상 역. (1998).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 [Lee, K. S. (1998). *Being and Time*. Seoul: Kachi. Trans. Heidegger, M. (1927 · 1972). *Sein und Zeit*. Max Niemeyer Verlag GmbH. Co.]
- Husserl, E. (1911).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이종훈 역. (2008). **엄밀한 학문으로서의 철학**. 서울: 지만지.
- [Lee, J. H. (2008). *Philosophy as a Rigorous Science*. Seoul: Zmanz. Trans. Husserl, E. (1911). *Philosophie als Strenge Wissenschaft*.]
- Jung, C. G. (1920). *Collected Papers on Analytical Psychology*. New York: Moffat Yard and Company. 김성환 역. (2016).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경기: 연암서가.
- [Kim, S. H. (2016). *What is Unconsciousness?*. Gyeonggi: Yeonamseoga. Trans. Jung, C. G. (1920). *Collected Papers on Analytical Psychology*. New York: Moffat Yard and Company.]
- Levinas, E. (1947 · 1963). *De l'existence à l'existant*.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서동욱 역. (2001).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 [Seo, D. W. (2001). From Existence to Existents. Seoul: Minumsa. Trans. Levinas, E. (1947 · 1963). *De l'existence à l'existant*.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 Levinas, E. (1947 · 1979). *Le temps et l'autre*. Fata Morgana. 강영안 역. (1996). **시간과 타자**. 서울: 문예출판사.
- [Kang, Y. A. (1996). Time and the Other. Seoul: Moonye. Trans. Levinas, E. (1947 · 1979). *Le temps et l'autre*. Fata Morgana.]
- Scheler, M. (1923).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Bonn: F. Cohen. 조정옥 역. (2006).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서울: 아카넷.
- [Cho, J. O. (2006). The Essence and Form of Sympathy. Seoul: Acanet. Trans. Scheler, M. (1923).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Bonn: F. Cohen.]
- Strasser, S. (1985). *The Idea of Dialogal Phenomenology*. Duquesne University. 김성동 역. (2002). **현상학적 대화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 [Kim, S. D. (2002). Phenomenological Philosophy of Dialogue. Seoul: Philosophy and Reality. Trans. Strasser, S. (1985). *The Idea of Dialogal Phenomenology*. Duquesne University.]
-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Canada: Univ. of Western Ontario. 신경림 · 안규남 역. (1994).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동녘.
- [Shin, K. R., An, K. N. (1994). Lived Experience Research. Seoul: Dongnyok. Trans. van Manen, M.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Canada: Univ. of Western Ontario.]
- Wolcott.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논문초록

기독인 여성들의 치유적 대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조지혜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세 기혼여성들과의 대화 체험을 질적으로 이해하고 대화 체험에 담긴 현상학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뤄진 세 여성들과의 만남을 연구의 맥락에서 다시 복원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치유를 향한 대화가 갖는 고유한 과정과 성격을 탐구하였다. 연구자의 회상일지를 통해 세 여성들과 나누는 과거의 대화 체험을 복원하고 개별적인 면담을 수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고유한 생애의 맥락 안에서 대화 체험의 위치와 의미를 찾아갈 수 있었다. 이후 현상학의 개념을 활용하여 참여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과정과 성격을 분석하면서,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는 대화가 어떠한 특징과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인격적 관계성을 토대로 내면의 심층에 자리한 상처의 근원을 찾아가고 이해하는 총체적인 대화의 과정을 ‘치유적 대화’로 개념화하였다.

치유적 대화는 고통 속에 있는 타인의 얼굴을 향한 관심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타인을 향한 관심은 내면의 상처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연결되면서, 막연하게 다가오는 타인의 정서와 분위기가 상처 입은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게 하였다. 치유적 대화는 타인이 자신의 존재를 열어 보이기까지 그 머뭇거림을 존중하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의 상처 입은 존재를 온전히 열어 보이는 고백과 수용의 대화를 통해 무르익었다. 상처를 고백하는 이에게 존재를 기울여 경청하고 응답하는 대화의 과정에서, 타인은 자신의 깨어진 존재와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치유적 대화는 주체와 타자의 인격적 관계성을 토대로, 내면성, 심층성, 내러티브성, 공감성, 윤리성의 다섯 가지 속성이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치유적 대화의 성격을 구현하고 있었다.

주제어 : 치유적 대화, 체험, 타인의 얼굴, 상처의 근원, 내면의 치유, 인격적 관계성

